

[묵상과 영적성숙]

⑥ 묵상과 성령님

강준민 목사 / 1998 / 페이지수: 2

먼저 성령님의 도우심 구해야

묵상에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한다. 말씀과 성령님은 함께 역사하신다. 신령한 세계를 날기 위한 독수리의 두 날개와 같이 말씀과 성령님은 함께 역사하신다.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말씀이 역사한다. 말씀이 곧 영이다. 말씀이 곧 생명이다.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요 6:63)고 말씀하셨다. 바울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엡 6:17)고 했다.

신령한 세계를 날기 위한 두 날개

바울은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을 하나로 보았다(엡 5:18~19, 골 3:16). 초대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부흥은 곧 말씀의 부흥이었다. 사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했을 때, 그들은 말씀에 사로잡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 할 수 있었다.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말과 “말씀을 받았다”는 말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 친족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실을 사도행전 11:1은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라고 기록했다.

성령님의 역사를 강조한다고 해서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된다. 또한 말씀을 강조한다고 해서 성령님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요 14:17). 모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딤후 3:16). 이런 확신 속에서 사도들은 말씀을 제쳐 놓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노라고 결심했다(행 6:2). 사도행전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사도들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기록은 없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뿐이다(행 4:29~31). 그 결과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 결과 표적과 기사가 그들 뒤를 따라서 역사했던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고백했던 백부장의 믿음을 최고의 믿음이라고 칭찬하셨다(마 8:8~10).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다. 말씀과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

비상하는 능력은 ‘기도’

우리는 두 개의 날개를 가져야 한다. 말씀과 성령님이라는 날개이다. 그러나 이 날개가 비상하도록 하는 것은 기도다. 기도할 때 말씀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신령한 영의 세계를 훨훨 날게 된다.

묵상을 할 때는 먼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해서 깨닫게 해주신다. 성소 안에 있던 떡 상을 밝히는 것은 등대였다(출

25:29~39). 떡 상은 말씀을 상징하고 등대의 불빛은 성령님을 상징한다. 말씀을 비추어 그 뜻을 알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라는 의미이다. 우리가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너희는 주께 받은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고 말씀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이란 성령님의 부으심을 의미한다. 성령께서 친히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이다.

설교나 그룹 성경 공부시간에는 주로 목회자나 영감을 받은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인도자가 하는 대로 따라하면 된다. 그러나 말씀 묵상은 혼자서 해야 한다. 혼자서 말씀을 취하여 묵상해야 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깨달아야 한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곁에 지혜와 총명의 신(사 11:2)으로 오셔서 우리를 깨우치신다.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빛이 되도록 성령님은 역사하신다(시 119:105).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성령님은 가르치신다. 만나야 할 사람을 가르쳐 주시며, 삶의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신다. 말씀을 사모하듯이,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한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 출처 : 도서출판 두란노